

번역인문학과 화쟁적 학문하기*

전 성 기
(고려대)

1. 머리말

‘인문학의 위기’와 ‘척박한 번역문화’는 우리 지식사회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이다.¹⁾ 그러나 이들이 문제 지적이거나 단편적 연구 차원을 넘어 학제적 탐구 주제로 연계되어 본격적으로 대두된 적은 없어 보인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인문학 텍스트들은 ‘번역된 것들’이다. 그래서 ‘인문학번역’과 ‘번역된 인문학’, 나아가 ‘인문학을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자성과 성찰 없이, 특히 인문학번역들의 실패와 회피들에 대한 우리의 반성 없이는 오히려 ‘인문학을 한다’고 말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812-A00197).

1) 박상익(2006: 9):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번역 문화는 척박하기 그지없다. 예나 지금이나 오역과 비문으로 가득한 번역서들은 독자들에게 좌절과 환멸을 안겨주고 있으며, 동서양의 주요 고전들 중 상당수는 아예 번역·소개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 어렵다. 사실 그래서는 우리 인문학이 제대로 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번역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인문학의 근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태생적으로 ‘위기의 학문’이며,²⁾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인문학’이란 말 자체가 번역된 말이고, 그 기원에 자리하는 로마의 인문학에서도 번역이 ‘처음부터 인문학의 중심’이었다고 한다.³⁾ 우리도 ‘번역을 통해 인문학을 다시 생각’하고, ‘인문학을 통해 번역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번역과 인문학의 이러한 긴밀한 상호 ‘반조(返照)’적 성찰은 번역인문학 구축의 토대로서, ‘인문학의 위기’ 문제와 ‘척박한 번역문화’ 문제를 아울러 풀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학제적 번역학은 이 상호 반조적 성찰 과정에서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한다. 번역인문학이 기대하는 인문적인 깊은 학제적 소통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학문하기’에 대한 새로운 성찰도 긴요하게 대두된다. 원효의 학문이 원형(prototype)인 <화쟁적 학문하기>가 우리가 제시하는 하나의 ‘기획’이다. 시안적 성격의 이 글은 ‘번역인문학의 과제’, ‘번역인문학적 탐구’, ‘화쟁의 역사적 이해’, ‘원효의 학문과 화쟁적 학문하기’, ‘학문적 깨달음 문제’, ‘번역인문학과 소통’을 차례로 간략히 다룰 것이다. 번역인문학과 화쟁적 학문하기의 세부적 관계나, ‘삶과 학문의 조화’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적 기술은 다른 기회로 미룬다.⁴⁾

2. 번역인문학의 과제

문학·사학·철학과 이에서 확장된 사회, 종교, 예술, 그리고 자연어로 된 과학분야 담론들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인문학의 번역 문제들, 번역된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등이 주요 과제인 번역인문학은 우리 인문

2) 안재원(2007)은 인문학이 로마 시대에 ‘삶의 한복판에서 사회적 위기와 함께 태어난 학문’이라고 말한다.

3) 안재원(2010): “로마의 경우, 번역은 처음부터 인문학의 중심이었다. 일단 라틴어가 가난했기 때문이다.”(214-15); “인문학이란 개념은 키케로가 자유교양학문(*paideia*)에서 인문학(*humanitas*)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218)

4) 전성기(2009a, 2009b, 2011, 2012a, 2012b, 2012c) 참고.

학의 <번역적 전환>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이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의 ‘척박한 번역문화’ 뿐 아니라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극복 방향 내지 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양인문학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우리 인문학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우리가 일궈내고자 하는 <화쟁적 학문하기>는 번역인문학 탐구 뿐 아니라 거의 파편화되다 싶이 한 우리 인문학 분야들 간의 번역을 통한 소통에도 하나의 좋은 ‘학문적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비영어권 서구에서도 번역은 상당한 사회문화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갖지만, 인문학 대량 수입국이면서 우리 한문 고전도 번역되지 않고는 대부분에게 이해가 어려운 우리의 현 상황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중요성은 실로 크다. 무엇보다 우리말 자체가 그 어느 나라말 못지않게 깊이 ‘번역된 언어’이다.⁵⁾ 그 간 우리 학계는 번역의 이러한 중요성과 위상에 걸맞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했으며, 오히려 번역을 경시하거나 대단치 않게 여기는 풍조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최근에 나온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1, 2권과 한국문학번역원이 지원한 한국문학작품들의 영역 평가 결과는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번역의 부실 현상이 광범위하고 심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 경우 모두 추천본이 10 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 결과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마디로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번역을 통한 신뢰할 만한 인문학 텍스트들의 구축은 실로 요원한 일이다. 오히려 이대로는 부실 번역 양산이 왜곡된 정보들을 낳고, 이것이 다시 학문적 문화적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더 크다.⁶⁾ 번역인문학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번역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이기 위한 제안이다. 이러한 ‘지평 열기’가 다른 ‘지평 열기’들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인문학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번역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오늘의 학제적 번역학을 기본으로 삼는 인문학의 한 분야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번역을 비판적 성찰적 방식으로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메타적 인문학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 예

5) 전성기(2008) 참고.

6) 번역평가사업단(2005: 35) 참고.

술 과학담론들과 폭넓게 관련된다는 점에서는, ‘소통인문학’이기도 하고, 일종의 ‘횡단적 인문학’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학제적 번역학은 인문학의 인식론적 성찰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번역인문학은 번역을 통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파편화되다시피 한 인문학, ‘번역된 학문’이면서도 번역에 대한 학문적 성찰에 소홀했던 기존 인문학을 <번역적 전환>을 전망하며 포괄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다. 물론 그간 번역인문학과 관련된 논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관련된 단편적 고찰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하지만 ‘번역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제고, 학제적 탐구를 통해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며 인문학번역과 그 관련 문제들을 인문학적으로 새롭게 탐구하는 것인 만큼, 예전의 단편적 논의나 지적들과는 뚜렷한 인식론적 차이가 있다. 번역인문학은 지나치게 세분된 인문학 분야들이 종적 횡적으로 만나고 어우러지는 하나의 큰 장이기도 하지만, <화쟁적 사유, 읽기, 글쓰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인문학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방향 제시이기도 하다.

번역은 언어간 소통이고 문화간 소통이며 서로 다른 사람들간의 시공간적 소통이다. 우리의 번역문화가 전반적으로 오역과 비문 등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는 것은 이 ‘소통’에, 그리고 이 ‘소통’의 행위자들에게 적잖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골곡지고 왜곡된 이 소통의 개선에 대한 진지한 검토, 철저한 분석, 속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위기는 곧 기회이니, 위기 때 바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번역인문학의 문제의식은 우리 인문학 구축의 핵심의 하나인 인문학 번역의 인문성과 그 소통 문제에서 출발한다. 우리 인문학번역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인문학번역이 그다지 인문(학)적이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추정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거꾸로 어떻게 우리 인문학번역이 인문(학)적으로 될 수 있는가 살피는 것이 될 것이다. <번역인문학>은 이같은 맥락에서 번역을 번역학을 넘어 인문학의 학제적 소통 차원에서 재성찰해 보자는 것으로서, 오늘의 우리 인문학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화두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우리 인문학의 번역적 전환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기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 ‘향기’, ‘무늬’ 등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⁷⁾ 하지만 번역의 주역은 인간이고⁸⁾ 번역인문학은 오늘의 인문학번역의 반성을 통해 내일의 인문학을 준비하려는 인문 주체들의 문제이다. ‘과학성’을 최우

선 기준으로 삼은 나머지 인문학에서 인간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못한 채 인간과 그 가치가 홀대받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문학, 언어학, 수사학, 해석학 등 번역인문학 관련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방향과 가능성들을 열어보이고 있다. 번역인문학은 이들에 힘입어 번역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번역담론들에 대한 메타적 성찰의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 인문학의 번역문화(文化)가 지금까지의 번역 문화(文禍)의 소용돌이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번역인문학적 번역문화(文和)를 이루도록 하는 것,⁹⁾ 이것이 번역인문학의 핵심 과제이다. 로네(Launay 1981)는 하나의 현상이 해당 이론과 잘 맞지 않거나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변혁(mutation)’이나 포괄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는 지표라고 진단한다. 이는 번역인문학에 잘 들어맞는 진단이기도 하다.¹⁰⁾ <화쟁적 학문하기>는 이러한 번역인문학을 잘 일구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획이고 테두리이다.

7) 고영섭(2001a: 104): “우리 학문은 지금 ‘자생학’과 ‘수입학’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자의 위기’라는 담론은 모두 ‘시대정신(Zeitgeist)’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과도하게 추종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오늘 우리 인문학의 위기는 어학, 문학, 역사, 철학(윤리) 등을 근간으로 하는 학문의 뿌리로써의 ‘인문학’이 그 이름과 달리 그 글을 쓴 사람의 ‘삶의 질’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향기’, ‘인간의 무늬’, ‘인간의 가치’ 등을 탐색시킴으로써 스스로 소외를 자초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8) 발라르(Ballard 2004: 53-54)는 번역의 주역은 인간이니 이 존재는 번역의 각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번역자의 ‘주관성’이 ‘읽기’나 ‘다시쓰기’, 오류 분석 등의 고려를 통해 번역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 이 세 ‘문화’는 김영민(1998)에서 빌린 것이다.

10) 전성기(2009a, 2009b, 2011, 2012a, 2012b, 2012c) 참고.

3. 번역인문학적 탐구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번역인문학’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 동서양 고전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식자들은 실은 ‘번역인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굳이 고전이 아니라도, 문학 철학 사학 등 인문학 분야 저술들의 번역에 힘써 온 번역자들 역시 어떤 면에서는 ‘번역인문학’을 몸소 실천해 온 것이다. 번역비평에 대해 간간히 있었던 논의들, 얼마 전부터 비교적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고전번역이나 ‘번역 수용’에 관한 논의들도 실은 모두 번역인문학과 ‘관련된’ 것들이다. 번역평가나 번역비평을 한다는 것 또한 번역인문학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다만 ‘의식적으로 번역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제고를 통해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며 새롭게 인문학번역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인문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인 만큼, 문제해결적인 분명한 인식 없이 막연히 혹은 부분적으로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것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번역 문제가 인문학 문제의 전체는 물론 아니나, 번역 문제를 도외시한 인문학 연구는, 다소 과장해 말하면, 사상누각 같은 것이다. 우리말에 대한 깊은 고려나 성찰의 부족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기존 서양 번역학이나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번역인문학 구축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같지 않은 만큼 해결 방식도 같지 않다. 우리는 번역인문학 <기획>에 적합한 방법을 우리 스스로 종합적으로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질문의 철학’이라 일컬어지는 미셸 메이에르(Michel Meyer)의 제문론(problematology)¹¹⁾과 텍스트 차원의 분석적 번역방법을 바탕으로, 언어학·번역학·텍스트학·수사학·해석학·일반의미론¹²⁾ 등을 주축 삼아 다양한 인문학번역 관련 연구들을 <학제적·파동적¹³⁾·실천적>으로 <화쟁·융합·회통>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좋은 탐구 방향이다. 번역인문학 구축에는 위 분야들 뿐 아니라 문학, 철학, 심리학, 인류학, 인지학을 비롯하여 근자에 번역학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분야들이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쟁·배제·비난’ 대신 ‘대화·협력·조화’의 선택이라는 큰 인식론적 전

11) 메이에르(2004, 2012) 참고.

12) 전성기(2001) 참고.

13) 전성기(2009c) 참고.

환이 번역인문학에 필요하다.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서양의 ‘체계의 학문’과 동양의 ‘수행의 학문’이 조화를 이루도록,¹⁴⁾ ‘읽과 학문’과 ‘삶의 학문’이 어우러지도록 궁리도 해야 한다.¹⁵⁾

오늘의 번역과 번역학 관련 연구들은 번역과 번역비평, 번역교육이 번역인문학을 옹호하고 선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다량의 연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 간의 만남은 제기된 문제에 따라, 해결하려는 방식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상황이나 목적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편집술>이 번역인문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재목(2004: 280-83)은 ‘쌓여 있는 구슬들을 깨는’ 방법론이 우리에게 빈곤했다고 진단한다. 사실 도처에 쌓여 있는 구슬이라 해도, 문제와 문제의식에 따라, 그리고 깨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인문학의 창의성은 편집술에서 나온다’는 그는 퇴계의 많은 저작 중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성학십도」도 ‘그의 순수한 저작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타인의 저작들을 창의적 발상에 의해 열 가지로 훌륭하게 편집해 놓은 것’이라 지적한다. 번역인문학도 이러한 <편집술적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양성의 조화>라는 우리 전통문화의 특색은 번역인문학에서도 꽃피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언어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다. 대세가 되어 있는 ‘입자적 수사’와 대비되는 <과동적 수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¹⁶⁾ 과동적 수사의 고양된 형태의 하나인 <화쟁적 수사>는 번역인문학이 번역과 관련된 많은 다양한 학문적 성찰의 결과들을 잘 꿰어 하나의 실천 가능한 우리 나름의 하나의 창의적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통의 언어이다. 화쟁적 수사를 넘어 번역인문학을 담아내기 위한 큰 그릇으로서 모색된 <화쟁적 학문하기>는, 아직 그 틀이 충분히 영글지 못했으나, 원효의 <화쟁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하나의 범고창신(法古創新)적 ‘기획’이다. 번역인문학의 앞찬 발전을 위해서는 <언해번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글과 글쓰기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우리말로 학문하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¹⁷⁾

14) 강영안·최진덕(1999) 참고.

15) 장희익(2007) 참고.

16) 전성기(2010) 참고.

번역인문학은 번역이란 공통 주제를 통해 다양한 인문 분야들이 번역에 대한 성찰들을 횡단적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의 깊은 학문간 <횡단적 소통>을 위해, 나아가 우리 인문학의 도약을 위해 ‘학문하기’ 자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는 물론, 인문학과 사회과학 사이, 심지어 인문학 분야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별로 원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번역에 대한 번역인문학적 성찰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원효의 학문>이 그 원형인 <화쟁적 학문하기>는 우리의 학문적 소통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쟁적 학문하기는 서양에서 크게 영향받은 지금의 인문학 탐구 방식을 존중하면서 이와 어긋나지 않게 인간의 ‘가치’, ‘향기’, ‘무늬’의 향유를 추구하는 우리 나름의 탐구적 모색이다. 이러한 시안적 성격의 인문 기획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인문학의 과제와 탐구에 대한 기술에 이어 ‘화쟁의 역사적 이해’, ‘원효의 학문과 화쟁적 학문하기’, ‘학문적 깨달음 문제’에 대해 가급적 간략히 살핀 다음, ‘번역인문학과 소통’에 대해 기술하며 ‘에니그마의 수사’의 실천을 권할 것이다.

4. 화쟁의 역사적 이해

미셸 메이에르의 제문론은 언어와 학문을 <문답>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설명하는 ‘질문의 철학’이다. 우리는 제문론적 관점에서 <화쟁>이 하나의 답이라면, 그 답에 대한 원효의 물음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물을 필요가 있다. 박재현(2009: 366)은 ‘원효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서로 모순되거나 정합되지 않는 불교 전통 내의 다양한 불교 이론(주장)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무리 없이 소통시킬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로 말한다.¹⁸⁾ ‘그동안 학계에서는 원효의 회통논리가 지향

17) 이기상(2006), 우학모(2008) 참고.

18) 박재현(2001: 192-93)은 화쟁론을 ‘일종의 화해이론’으로 이해해온,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다시피 해온 해석을 문제삼는다. 그는 원효의 화쟁을 화해이론으로 이해한 것은 하나의 선입견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화쟁(和靜)의 쟁(靜)을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논쟁으로 이해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하는 과녁'을 '대체로 통일, 종합, 화해, 협력, 조화 등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암묵적 함의를 본 상태'인데, 저자에 의하면, 이는 '통섭론을 처음 제기한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이 통섭론을 '지식의 통일'로 규정한 것과 유사한 이해'이다. 저자는 '원효가 말한 통섭(通攝)은 지식의 통일이 아니라 상호소통 내지는 상호이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며, 윌슨 식의 '통섭(統攝)'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힌다(393-94). 그는 '원효의 회통과 화쟁 논리를 화해와 종합으로 이해하게 되면,攝에 통을 앞세웠던 원효의 뜻을 잃게 된다'고 우리의 주의를 일깨운다(393).¹⁹⁾ 이와 더불어 화쟁의 역사적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화쟁이 일심, 무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고영섭(2004)은 '일심'이 원효 사상의 '핵심 키워드'이고, 원효의 '사상적 역정'은 '일심-화회(和諍會通)-무애'로 '압축'되며 '화쟁(회통)'은 '일심과 무애를 이어주는 매개항'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효걸(2002: 20)은 화쟁이 '開合과 立破의 경로를 통해 일심의 본래성인 무애를 실현한다'고 표명한다.²⁰⁾ 제문론은 수사를 '주어진 문제에 대한 주체 사이의 거리 교섭'으로 정의하는데, 일심·무애와 따르가 아닌 원효의 역사적 '화쟁'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 오늘의 '화쟁' 사이의 거리도 <수사적 교섭>의 대상이다.

이효걸(2002: 26)에 의하면, '원효가 설정한 화쟁의 목적은 귀일심원(歸一心源)과 요익중생(饒益衆生)'이다. 즉,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하는 것'으로,²¹⁾ 이는 '깨달음과 깨달음의 실천'에 따른 '실천 지침'이기도 하다(29). 이효걸(2002: 21)은 '원효의 화쟁'을 '크게 두 개의 영역' 혹은 '측면'으로 대별한다. 하나는 '부처의 시각에서 범부를 향한 자비로서의 화쟁'이고, 다른 하나는 '범부의 시각에서 부처를 향한 수행으로서의 화쟁'이다. '화쟁의 이 두 측면은 존재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체의 마음 안에서 두 측면은 상극하면서 동시에 진행

19) 박태원(2011: 191-2)도 같은 맥락에서 원효의 화쟁의 대상을 '불교 이론에 관한 쟁론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20) 이와 같은 일심-화쟁-무애의 관계는, 비교가 다소 거칠고 층차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수사학의 에토스-로고스-파토스와 견주어 생각해볼 수도 있다.

21) 이효걸(2002: 26)은 '화쟁의 목적에 귀일심원의 다른 측면인 요익중생을 명제화시킨 것은 원효사상의 특징이자 진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적 논의들에서는 '자비로서의 화쟁'과 '수행으로서의 화쟁'이 대개 분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가, 또한 이 들보다 오히려 '논리로서의 화쟁'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박태원(2011: 213-4)은 '화쟁의 논리 형식을 귀일심원과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원효사상의 두 축에 적용시켜 원효 사상 전체를 화쟁의 논리에 의거하여 독해하려는 것은 일리는 있으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화쟁은 구체적 쟁론들을 염두에 둔 문제 해결의 태도를 담고 있는 언어이며 원효 자신도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불교 이론상의 쟁론들의 <문제 해결>도 일심이나 무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심(一心)'이란 무엇인가? 고영섭(2002b: 506-07)은 일심은 '원효에게 있어 모든 것의 근거이자 인식의 근원'이라 말한다. 조수동(2009: 167)도 원효가 '불교 교학에 대한 여러 쟁론의 인식적 토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원리를 一心'으로 보았고, 그래서 '일심은 화쟁의 근본 정신'이라는 견해를 표명한다. 일심의 근원적 성품을 잘 인식하고 있는 김원명(2008a: 259)도 역시 화쟁이 '일심에서 전개된다'고 천명한다. 문제는 '일심의 근원에 되돌아간 보살이나 부처는 일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방법으로 화쟁'이 필요치 않은데,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중생에게는 일심의 근원에 되돌아갈 방법으로서 화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263). 원효의 '각(覺) 사상'은 화쟁의 역사적 이해에서 간과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바로 '일심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박태원(2011: 19)은 '원효 사상이 보여주는 통섭적²²⁾ 기능 역시 일심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통섭 기능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 통로'가 '각(覺) 사상'인데, '종래의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²³⁾ 이에 따라 화쟁과 일심/무애와의 관계, 일심의 해석, 화쟁의 언어관, 일심

22) 박태원(2011: 15), 각주1): "필자는 통섭의 한자로서 '統攝'과 '通攝'의 두 가지를 병용한다. 統攝은 '분열의 극복'이라는 의미가 우선하고, 通攝은 '서로를 향해 열려 서로를 받아들임'의 뜻으로서 존재의 상호 소통적 포섭 관계가 핵심이다."

23) 박태원(2011: 21-2)은, 일심을 '언어와 사고를 넘어 있는 것에 대한 언어적인 잠정적 표현'으로 보는 이효걸(2010: 587-88)과 달리, '원효가 인간 존재의 궁극적 희망으로 주목하는 일심은 이러한 인간 특유의 사유 능력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각 사상’, ‘귀일심원 요익중생’ 등이 원효의 불학이 아닌 여타 학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5. 원효의 학문과 화쟁적 학문하기

박성배(2009:94)는 ‘동양철학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또한 가장 중요한 논리형식이라는 體用的 논리로 풀면 원효의 학문은 용이요 그의 삶은 체’라고 한다. 그래서 ‘체인 그의 삶을 이해함이 없이, 용인 그의 학문만 따진다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삶과 학문의 조화>는 ‘과학성’이라는 인식론적 문제에 골몰한 나머지 우리 삶과의 관련성에 대한 성찰에 소홀해진 오늘의 인문학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24) 고영섭(2001a: 121-2)은 ‘원효의 학문하는 법이 우리의 귀감이 될 수 있음은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실천과 아울러 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심-화(쟁)회(통)-무애의 축을 통해 인간 이해와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원효의 보살적 삶은 오늘 이 땅에서 철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새로운 언어와 사유로 학문하는 법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25) 고영섭(2001b: 102)은 원효의 학문론에 내포된 주장에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대상을 타당하게 인식하고, 세상에 유익한 구실을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원효의 불학(佛學)하기의 한 특징’인데, 이 세 가지가 ‘일심-화쟁-무애’라고 그는 해석한다. ‘원효가 생각한 학문은 바른 마음[一心], 바른 인식[和靜], 바른 실천[無碍]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한다(129). 그는 ‘삶과 삶의 일치가 바로 원효의 학문에 대한 생각’이

‘일심의 경지는 인간에게 자리 잡은 사유 능력의 차원 높은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전성기(2012a, 2012c) 참고.

25) 고영섭(2001a:115-8)은 원효의 학문하기에 입각하여 그의 ‘찬빈론’(滿空論)을 전개해 나갈 포부를 밝힌다.

며, 이는 ‘그의 삶과 생각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원효의 사상적 흐름이 일심(一心)과 화쟁(和諍)과 무애(無碍)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131).²⁶⁾

보다 구체적으로 원효의 학문 문제에 천착한 이진오(2000: 137)는 그 ‘원리’들을 보다 세밀하게 기술한다. ‘우선 원효의 학문을 이루는 가장 큰 바탕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이론을 모조리 섭렵하고, 그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노력을 원효 학문의 제1원리’라고 그는 명명한다. ‘다음으로 하나의 원리에 의해 통합적으로 파악한 학문을 다시 계통적으로 분류하면서 각 이론의 차별성과 층차를 가리고, 나아가 전체의 체계를 잡은 점이 원효 학문의 중요한 일면’인데, 이것이 ‘원효 학문의 제2원리’이다. ‘원효 학문의 제3원리’는 ‘실천 방법론’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성의 영역을 적극 도입’한점이다. ‘원효의 학문에 힘이 느껴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제1원리에 의한 응집력과 제2원리에 의한 확산력이 상반성과 상보성을 동시에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제1원리는 구심력이, 제2원리는 원심력이 되어 그 힘의 반작용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며, ‘제1원리와 제2원리가 결합된 힘이 다시 실천성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원효의 학문과 수행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직관적 세계에서 출발하여 글쓰기라는 이성적 양식을 거쳐 무애미학이라는 예술적 양식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저자의 포괄적 정리이다(145-46).

이진오(2000: 139-40)는 ‘원효의 학문이 가지는 역동성’은 ‘제1, 제2, 제3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창출된 것이지만,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힘은 광범위한 사상의 섭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다. ‘불교 내의 모든 사상을 섭

26) 고영섭(2001b)은 <참다운 불학하기의 한 모범>이라는 ‘원효의 불학하기’를 네 가지로 특징짓는다. 첫째는 ‘학문에 대한 앎과 삶의 일치’이고, 둘째는 ‘실천 우위의 텍스트 비평[敎判]’, 셋째는 ‘다양한 주장에 귀 기울이기[和諍]’, 넷째는 ‘근기와 끈기, 모심[孝]과 섬김[順]’이다(129-151). 저자는 ‘효순의 대상이 부모와 스승과 상가뿐만 아니라 우주법계를 향한 효순심(孝順心)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원효의 계학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설명하는데(151), 특히 이 ‘효순’ 문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렵했을 뿐만 아니라, 外典에까지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에 그 용약과 회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유로운 처지에서 다양한 스승으로부터 두루 배우고자 했던 것이 원효 학습법의 특징'이고, 그렇게 배운 내용을 '자기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리하려 하였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자세에 힘입어 우리나라 유일의 교판가로서 불교학의 체계를 객관적으로 재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진오는 '원효 학문의 특징'이 '단순히 회통을 통한 대립의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철저한 분석과 분류, 그리고 요약과 종합의 양면을 겸비한 데서 원효 학문의 힘'이 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한 저자는 원효가 '특히 요약과 종합의 측면을 더욱 중시한 데에 그 탁월성이 있다'고 평한다. 그는 '대단히 치밀하고 조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원효의 학문과 수행, 실천'을 아홉 단계로 구분한다. 이들은 '첫째는 광범위한 이론의 섭렵, 둘째는 치밀한 분석, 셋째는 엄밀한 비판, 넷째는 간명한 요약, 다섯째는 명료한 분류, 여섯째는 자기 관점에서의 체계화, 일곱째는 전체적인 회통, 여덟째는 걸림 없는 무애', 그리고 '아홉째는 삶 속으로의 실천'이다.²⁷⁾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섭렵 - 분석 - 비판 - 요약 - 분류 - 체계화 - 회통 - 무애 - 실천

이진오(2000: 151-13)는 '원효의 학문은 여럿을 하나로 통합하면서도 여럿을 부정하지 않는 多即一, 一即多의 원리', 즉 '전체가 곧 개체요, 개체가 곧 전체'라는 화엄 원리가 '기본틀'이라고 천명한다. 저자는 '통일성'이 '다즉일'의 일방향적 고려라면 '통합성'은 '다즉일, 일즉다'의 양방향적 고려라고 말한다(138). 이러한 화엄 원리는 번역인문학이 <소통의 화두>로 추구할 만하다.²⁸⁾ 이진오는 '원효의 학문 방법'에서 오늘의 인문학을 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얻

27) 김성철(2003:2)은 '흔히 원효 사상의 특징은 화쟁(和諍)에 있다'고 하는데, 『관비량론』에서는 '화쟁가가 아니라 논쟁가로서의 원효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

28) 요즈음 식자들 간에 회자되는, 사회생물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통섭'은 화엄적인 '회통'과는 사뭇 다르다. 우희중(2009)은 '생물학으로 모든 학문과 종교를 통합하려는' 에드워드 윌슨 식의 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는다. 그는 원효가 ‘외래 지식의 홍수 속에서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갖추는’ 것과 ‘이성적 지식과 삶을 소통시키는 일’에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고 평한다. ‘실천을 위해 감성적 양식을 도입한 것’이 ‘원효 학문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저자는 ‘현금의 인문학은 혹시, 너무 이성적 양식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지 회의하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진오가 기술한 원효의 학문은 겉모습으로는 오늘의 인문학에 되살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화쟁의 언어나 논리> 측면에서는 혹 그러할지 모르나 화쟁의 토대가 되는 <화쟁의 정신>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태원(2011:181)의 말이다. “정작 주시해야 할 것은 화쟁의 논리 형식이 산출되는 토대이고 원천이다. 화쟁의 논리를 구사하는 자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태원(2011: 221-27)은 ‘화쟁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포괄적 문제에 대해 다음의 가능 조건들을 제시한다: 1) 인간의 진리탐구적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포섭하라, 2) 각 주장들의 일리(一理)를 포착/변별하여 포섭하라, 3) 화쟁의 언어관을 수립하라, 4) 모든 쟁론적 인식 토대에서 해방되는 마음의 경지를 확보하라. 이들은 저자가 ‘인간사의 모든 쟁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보편 원리들’이다. ‘화쟁의 언어관’은 구체적으로는 ‘실체적 언어관의 극복’과 ‘방편 언어의 이해’를 의미한다(193).²⁹⁾ 저자는 원효가 ‘이러한 보편 원리들의 가능 근거를 각(覺) 사상에 입각한 인간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일심을 뜻하는 넷째 조건이 실은 제1조건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조건들 역시 충족이 어렵다. 하지만 제1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화쟁의 언어>, <화쟁의 수사>가 저절로 구사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세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터득의 노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원효의 학문과 화쟁적 학문하기 사이에 다양한 수사적 교섭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번역인문

29) ‘실체적 언어관은 언어적 사유에 의한 개념의 존재 왜곡적 확산, 즉 희론(戲論)에 의해 형성’되는데(204), 이 희론은 ‘실재하지 않는 실체적 자아 관념을 증폭시켜 ‘나의 견해’에 집착하게 하여 배타적 쟁론 태도를 초래하게’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206-07). ‘방편으로서의 언어’는 ‘언어(敎)는 존재의 본성(실체)을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맥락과 상황의 실용적 가치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제약 없이 선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210); 박태원(2011: 204-13) 참고.

학에서도 다양한 탐구들이 가능하겠지만, 원형에 가까운 화쟁적 학문하기를 추구한다면 <일심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노력, <화쟁적 언어>, <화쟁적 수사>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6. 학문적 깨달음 문제

원효의 학문이 원형인 ‘화쟁적 학문하기’에서는 <깨달음>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된다. 하지만 원효의 학문과 ‘화쟁적 학문하기’는 ‘일심’의 체득을 비롯하여 위에 언급된 원효의 학문 원리들의 구체적 이해와 실천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불가피하다. 학문 연구자, 학문의 대상, 목적, 상황 등도 주요 변수이다. 중요한 문제는 양자 사이의 거리를 여하히 좁힐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수사적 교섭의 문제>이다. 다양한 해결 방식들이 있겠으나, 적어도 원효의 학문의 원맥락을 가급적 존중하려 한 연구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성택(2009: 14)은 지멜로(Gimello)와 더불어 ‘최종적 깨달음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는 수행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깨달음’을 모두 인정한다. 화쟁적 학문하기에서도 이러한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³⁰⁾ 조동일(1996: 31)은 ‘학문에서는 점오점수(漸悟漸修)나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아닌 돈오점수(頓悟漸修)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점오점수’라는 ‘학문의 길’을 가고 있는 연구자들도 적지않아 보인다.

우희중(2007: 78-81)은 현대과학의 복잡계 관점에서 깨달음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일상생활 속의 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치열한 구도의 길을 걸어온 대선사의 확철대오’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이 ‘경험하는 개체에 따라 그 범위와 깊이’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 깨달음은 ‘인식의 전환’이고, ‘인식에서의 상전이(phase transition)’인데, 크거나 작거나 ‘속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학문적 깨달음과 종교적 깨달음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이 ‘확철대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러

30) 박성배(2003)는 학문적 깨달음과 그가 ‘깨침’이라 부르는 종교적 깨달음을 둘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한 체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임계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는 정진’에 비중을 크게 둔다. 저자는 복잡계적 관점이 ‘극한의 임계상태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행위들이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생활 속에서부터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임계상태 도달을 위한 치열한 노력은 ‘창조적 직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³¹⁾ 번역인문학에서는 ‘상호주관적 그림직함’(intersubjective plausibility)도 중요하지만,³²⁾ ‘창조적 직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직관은 번역에서 라드미랄(1998: 154)이 말하는 ‘의미적 통찰’(semantic insight)을 통해 발휘되기도 한다.

깨달음을 ‘종교를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는 오강남·성해영(2012)은 종교에서 표층 차원과 심층 차원을 구분한다. 표층종교는 ‘문자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반면, 심층종교는 ‘문자를 넘어서 있는 더 깊은 뜻’을 찾으며, ‘지금의 나’에서 벗어나 ‘참나’로 ‘부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38-39). 이들은 ‘제일 중요한 진실은 모든 게 <하나>라는 것’이라 말한다. ‘상호 연관’ 혹은 ‘상호 의존성’이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45). 심층학문에서도 ‘이기적 나’를 넘어 ‘큰 나’로, ‘작은 우리’에서 ‘큰 우리’로 나아가려는 모색이 중요하다. 이를 깊이 인식한다면 학문적 소통은 자연히 ‘나’ 중심의 ‘입자적 수사’보다는 ‘우리’ 중심의 ‘파동적 수사’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³³⁾ 학문적 깨달음과 삶의 깨달음이 같이 꽃피우고 이것이 화쟁적 수사를 통해 향기를 발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하지만 원효 학문의 현대적인 한 모습을 다석 유영모 선생을 뒤이은 김홍호 선생의 자취에서 느낄 수 있으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³⁴⁾ <화쟁적 학문하기>는 ‘원효의 학문’을 꼭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 원형의 의미를 체득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최

31) 주형일(2008: 100): “창조적 직관을 통한 앞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알게 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공부가 사전에 이뤄져 있어야 한다. 깨달음은 바로 그런 사전 지식들을 바탕으로 얻어진다. 사전 지식들과 깨달음이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직관적 앎이 무매개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32) 발라체스쿠·스테파닌크(Balacescu/Stefanink 2003) 참고.

33) 전성기(2007) 참고.

34) 150권 발행 예정인 “김홍호 사상전집”은 현재 13권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한다.

선을 다하여 나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³⁵⁾

7. 번역인문학과 소통

오늘날의 사회에서 거의 ‘디폴트 모드’가 되어 있다 싶어 한 ‘정복의 수사’나 ‘바꿈의 수사’³⁶⁾가 ‘나’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층학문이 선호하는 양식이라면, ‘큰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초대의 수사’, ‘과동적 수사’ 같은 ‘화쟁적 수사’는 심층학문이 선호하는 양식이다.³⁷⁾ 다양한 이론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번역학같은 인문학 분야에서 화쟁적 사유와 화쟁적 수사는 속깊고 폭넓은 소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김원명(2008b: 12)은 우리가 지금 ‘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문화 배경이 다른 서양’의 ‘비판적 글쓰기’, ‘설득의 수사학’, ‘논리적 글쓰기’를 배우고 있는데, 그 대신 ‘회통 글쓰기’와 ‘화회 글쓰기’를 하자고 제안한다. ‘비판·설득’보다는 공감적 소통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번역인문학도 진정한 인문적 소통을 위해서는 화쟁적 사유와 수사를 통한 심층학문적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위의 ‘원효의 학문과 화쟁적 학문하기’에서 명시적 목시적으로 제시된 제안들의 적극적 활용도 필요할 것이다.

번역이 언어간 소통이고 문화간 소통이며 사람들간의 시공간적 소통이듯이, 번역인문학은 인문학번역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 분야들 간의 학제적 소통을 적극 지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번역인문학은 <소통인문학>이기도 하다. 이왕주(2001: 31-2)는 학문의 위기에 대해 ‘방법의 위기가 아니라 소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그는 ‘새로운 인문학은 연관 학문들이 무너를 만드는 차이들의 조화로운 연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번역은 바로 이러한 연대의 소재이고 번역인문학은 그러한 ‘새로운’ 인문학이다. 그는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으려면 문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번역인문학은 소통의 새로운

35) 학문적 깨달음과 관련해서 켄 월버의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조효남(2008) 참고]과 홍승표(2002)의 ‘깨달음의 사회학’ 등도 언급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36) 포스·포스(Foss/Foss 2003: 7) 참고.

37) 전성기(2009c, 2010) 참고.

‘문법’을 지향한다. 저자는, 레비나스에게서 암시를 받아, 학문이 ‘이제 탐구의 태도 뿐 아니라 애무의 태도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문이 함께 사람의 무늬를 짤 수 있으려면 애무의 싱그러운 더듬거림과 현란한 헛손질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39-40). 학문적 깨달음을 치열히 추구하는 번역인문학 탐구자들에게도 그러한 여유와 몸짓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몸짓은 무애와도 통하는 것이 아닐까?

원효는 일심이 바탕인 화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쟁적 학문하기>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불학적 깨달음도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이 깨달음이 학문적 깨달음과 어떤 관계인지, 몇몇 선구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메네 신부(Meynet 2009: 13)에 의하면, 성경의 수사는 설득과 증명의 수사가 아니라, ‘에니그마의 수사’이다.³⁸⁾ 성경의 수사는 ‘독자가 이해하기 원하고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효가 제시한 <화쟁의 수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오늘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하나의 ‘에니그마의 수사’가 아닐까. 원효가 찾은 길, 그가 간 길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할 수 있다. <화쟁적 학문하기>는 바로 그러한 선택으로의 우리의 <초대>이다. 번역인문학의 다양한 가능한 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이 화쟁적 학문하기의 길이다. 김상현(2009: 10)은 원효의 화쟁의 정신과 사유의 논리가 ‘融二而不一’, 즉 ‘두 가지를 융합하나 하나로 획일화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일러준다. 이러한 묘합(妙合)은 번역인문학이 학문적 소통의 지향점으로 삼을 만하다.

인문학의 위기가 사회적 담론이 되어 있는 지금, 화쟁적 학문하기는 우리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쟁적 인문학>의 지평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예고초월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화쟁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인문학번역의 현재는 제문론적으로 보면, 인문학번역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우리 인문학 번역자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답들이 중첩된 결과이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38) 메네(2009: 13)는 성경의 수사를 그리스적 수사와 대비하여 ‘그리스적인 것은 논증하고, 유대적인 것은 제시한다(Le grec démontre, le juif montre)’라고 말한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폭넓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 상황이다. 척박하고 열악한 우리 인문학번역 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기획된 번역인문학의 탐구에서, 그 토대인 학제적 번역학과 그 대상인 인문학 분야들의 상호적 반조는 번역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소통 양식’³⁹⁾의 개선을 넘어 <화쟁적 인문학>을 전망하게 한다. 화쟁적 학문하기에서의 화쟁은 화쟁적 사유, 화쟁적 수사,⁴⁰⁾ 화쟁적 읽기, 화쟁적 글쓰기⁴¹⁾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화쟁적 인문학에서의 소통은 비선형적 사고에 입각할 필요가 커보인다. 김종욱(2011: 21)은 ‘선형 사유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상호 대립하여, 일비다(一非多) 다비일(多非一)이어서, 전체론과 개체론이 이원적으로 분화되지만, 비선형사유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상극상입하여,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이어서, 전일론(全一論)이라는 방식으로 비이원적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깨달음은 ‘이해가 비선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 깨달음은 예고의 ‘죽음의 도약’(salto mortale)⁴²⁾일지도,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의 ‘진일보進一步’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깨달음이 ‘이해의 질적 혹은 수직적인 큰 도약’인 것은 분명하다. 삶이나 학문에서의 깨달음은 ‘아하!’ 차원의 깨달음에서 ‘삶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큰 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번역인문학에서도 다양한 이해와 통찰의 도약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도약들은 섬세하고 정직한 논증들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다. 깨달음을 위한 노력도 <탐구의 논증>이나 <추론>들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넘어서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크로스화이트(2001: 327)가 말하는 ‘우리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려 애쓸 때 진행되는 종류의 추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⁴³⁾

39) 포스·포스(2003: 4-7)에게 ‘수사 양식’은 ‘소통 양식’이다.

40) 전성기(2009c, 2010) 참고.

41) 이진오(2000), 김원명 (2008b) 참고.

42) 라드미랄(2005)은 번역과정의 ‘탈언어화’(déverbalisation)에 대해 이 표현을 쓰고 있다.

43) 전성기(2011) 참고.

8. 맺음말

번역인문학은 ‘인문학의 위기’와 ‘척박한 번역문화’라는 깊이 연관된 문제의 중첩된 부분의 해결을 위해 인문학의 번역적 전환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번역적 전환을 수용하거나 포용할 만한 기존 틀이 없기에 번역과 관련된 학제적 탐구들이 토대가 되는 번역인문학이라는 횡단인문학적 탐구를 모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였던 ‘과동적 수사학’의 하나의 원형이자 ‘삶과 조화를 이루는 학문’이기도 한 <원효의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화쟁적 수사>와 <화쟁적 학문하기>는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쟁적 학문하기는 인문학이 인문적 ‘가치’, ‘향기’, ‘무늬’를 새로이 일구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화쟁적 학문하기는 탐색적 시안이기에, 화쟁의 역사적 이해로부터 학문적 깨달음 문제에 이르는 다소 긴 우회 과정이 불가피하였다. 번역인문학은 화쟁의 원형적 의미의 터득이나 체득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화쟁의 <문자>가 아니라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화쟁정신>을 살리는 번역인문학의 길은 하나만이 아니다. 원효가 제시한 <화쟁의 수사>를 체득하여 실천하는 우리의 <에니그마의 수사>의 모습은 다채로울 수 있다.

번역인문학은 ‘체계의 학문’과 ‘수행의 학문’이 조화를 이루고 ‘삶의 학문’과 ‘삶의 학문’이 어우러지는 것을 하나의 큰 전망으로 삼는 ‘소통인문학’이기도 하다. ‘다즉일 일즉다’의 화엄적 통합성은 인문학의 번역적 전환을 모색하는 번역인문학의 중요한 <소통의 화두>이다. 일심-화쟁-무애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원효의 학문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이론들의 섭렵’, ‘통합적으로 파악한 학문의 계통적 분류와 체계화’, ‘감성적 영역이 겸비된 실천’이라는 세 원리와 ‘학문-수행-실천’의 과정에서 보듯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화쟁적 학문하기>는 이러한 원효 학문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범고창신적 기획이다. 이러한 기획은 번역인문학을 넘어 <화쟁적 인문학>으로 그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번역문화(文化)는, 이러한 기획의 실현 과정을 통해, 작금의 번역문화(文禍)의 소용돌이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번역문화(文和)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갈등의 ‘지식기반사회’를 넘어 소통의 ‘지혜기반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지금, 번역인문학은 화쟁적 학문하기로서의 자리매김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화쟁적 인문학>이 <보

편적 인문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안·최진덕 (1999) 「수양으로서의 학문과 체계로서의 학문」, 『철학연구』 47: 35-63.
- 고영섭 (2001a) 「이땅에서 철학하기 -연기철학·아우르기·찬빈론」, 『석립』(동국대) 35: 103-122.
- (2001b) 『원효탐색』. 서울: 연기사.
- (2002a) 「원효 연구의 어제와 오늘」, 『원효』. 고영섭 편저, 서울: 예문서원. 15-44.
- (2002b) 「원효의 화엄학 -광엄과 보법의 긴장과 탄력」, 『원효』. 고영섭 편저, 서울: 예문서원. 501-31.
- (2004) 「원효의 십문화쟁론」, 『교수신문』, 2004. 4. 17.
- 김상현 (2009) 「元曉의 無碍行과 和諍思想의 현대적 의미」 『전자불전』 11: 1-16.
- 김석근 (2010) 「화쟁(和諍)과 일심(一心) -원효 사상에서의 평화와 통일」, 『정치사상연구』 16(1): 171-93.
- 김성철 (2003) 「원효의 『판비량론』에서 배우는 학문의 자세」, www.kimsch.net/paper/panstudy.hwp, 8p.
- 김영민 (1998) 『문화(文化) 문화(文禍) 문화(文和): 산문으로 만드는 무늬의 이력』. 서울: 동녘.
- 김원명 (2008a) 『원효의 열반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 (2008b) 「원효의 화쟁 글쓰기」, 『철학논총』 52(2): 1-16.
- 김종욱 (2011) 「복잡계로서 생태계와 법계」, 『철학사상』 41: 7-36.
- 미셸 메이에르 지음, 이영훈·진종화 옮김 (2004) 『언어와 문학 -의미에 관한 시론』. 서울: 고려대 출판부. [M. Meyer (1992) *Langage et littérature*, Paris: PUF.]
- 미셸 메이에르 지음, 전성기 옮김 (2012) 『수사 문제 -언어·이성·유희』. 서

- 울: 고려대 출판부. [M. Meyer (1993) *Question de rhétorique: langage · raison · séduction*. Paris: Librairie générale française.]
- 박상익 (2006) 『번역은 번역인가』. 서울: 푸른역사.
- 박성배 지음, 윤원철 옮김 (2003) 『깨침과 깨달음』, 서울: 예문서원.
- (2009) 원효의 화쟁논리로 생각해 본 남북통일문제 -원효사상의 현실적 전개를 위하여』, 『한국사상과 불교 -원효와 퇴계, 그리고 돈점논쟁』. 서울: 혜안. 88-124.
- 박재현 (2001)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고 -화쟁의 소통(疏通)적 맥락』, 『불교평론』 8: 191-215.
- (2009) 「해석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본 원효의 會通과 和靜』, 『불교학연구』 24: 365-409.
- 박정호 (2005) 「진·선·미 -켄 윌버의 통합적 진리관에 관한 소고』, 『범한철학』 36: 127-54.
- 박태원 (2011) 『원효사상연구』. 울산: 울산대 출판부.
- (2012) 『원효 -하나로 만나는 길을 열다』. 서울: 한길사.
- 안재원 (2007)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탄생한 인문학』, 『경향신문』 2007.1.26.
- (2010) 「인문학의 형성과 번역 문제 -키케로를 중심으로』, 『번역비평』 4: 214-34.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2007)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서울: 창비.
- 오강남·성해영 (2012)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서울: 북성재.
-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2008)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사무침』. 서울: 푸른사상.
- 우희중 (2007) 「복잡계 이론으로 본 생명과 깨달음의 구조 -성철 너머를 위한 깨달음의 탈신화화』, 『불교학연구』 18: 66-92.
- (2009) 진화론적 시각과 불교의 연기적 관점의 만남』, 『종교문화연구』 13: 47-85.
- 이기상 (2006)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 파주: 살림출판사.
- 이왕주 (2001) 「소통 인문학의 무늬』, 『범한철학』 23: 31-43.
- 이진오 (2000) 「원효의 학문방법과 글쓰기, 그리고 미학』, 『가산학보』 8:

134-54.

- 이효걸 (2002) 「元曉의 和諍思想에 대한 재검토」, 『불교학연구』 4: 5-34.
 ---- (2010) 레비의 가상화와 원효의 화쟁사상, 『불교학연구』 27: 557-601.
- 장희익 (2007) 「인간적 학문 -‘삶 중심’ 학문의 복원을 위하여」, 『知平』 2: 11-26.
- 전성기 (2001) 「일반의미론과 번역」, 『불어불문학연구』 48: 685-706.
 ---- (2007) 「입자적 수사(학)과 파동적 수사(학)」, 『수사학』, 6: 165-178.
 ---- (2008) 우리 번역글쓰기의 지형도, 『텍스트언어학』 24: 285-311.
 ---- (2009a) 「탐구번역론 -하나의 인문학 번역론」, 『번역학연구』, 10(2): 133-157.
 ---- (2009b) 문학 해석번역론 재해석, 『불어불문학연구』, 80: 475-499.
 ---- (2009c) 파동적 수사학으로 -인문학에서의 학술적 소통을 위하여, 『수사학』 11: 103-31.
 ---- (2010) 파동수사학을 위한 원효의 화쟁론 고찰, 『수사학』 13: 55-88.
 ---- (2011) 번역교육과 인문교육, 『불어불문학연구』, 86: 399-424.
 ---- (2012a) 「제문론, 인문학번역, 번역인문학」, 『불어불문학연구』, 89: 413-442.
 ---- (2012b) 번역의 수사학, 『불어불문학연구』, 90: 395-428.
 ---- (2012c) 인문학 번역론의 한 메타적 성찰, 『번역학연구』, 13(1): 205-240.
- 조동일 (1996)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 조성택 (2009) 「‘깨달음의 사회화’에 관련한 몇 가지 고찰」, 『불교학연구』 29: 7-55.
- 조수동 (2009) 「원효의 불성이론과 화쟁」, 『철학논총』 58: 149-71.
- 조효남 (2008) 『의식·영성·자아초월 그리고 상보적 통합』. 서울: 학수림.
- 주형일(2008): “직관의 사회학, 나의 사회학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 『커뮤니케이션 이론』, 4-1, 77-113.
- 최재목 (2004) 인문학, 편집술, 事的 글쓰기 혹은 緣起的 글쓰기, 『인문연구』 (영남대) 45-46: 277-94.
- 크로스화이트, J. 지음, 오형엽 옮김 (2001)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서울: 고려대 출판부. [J. Crosswhite (1996) *The Rhetoric of Reason: Writing and the Attractions of Argument*. Wisconsin: U of

Wisconsin P.]

홍승표 (2002) 『깨달음의 사회학』, 서울: 예문서원.

Balacescu, I. & Stefanink, B. (2003) 'Modèles explicatifs de la créativité en traduction', *Meta* 48(4): 509-525.

Ballard, M. (2004) 'La théorisation comme la structuration de l'action du traducteur', *La linguistique* 40(1): 51-66.

Foss, S.K. & Foss, K.A. (2003) *Inviting Transformation: Presentational Speaking for a Changing World*. Second Edition, Long Grove: Waveland Press.

Ladmiral, J.-R. (1998) 'Théorie de la traduction: la question du littéralisme', *Transversalités* 65: 137-157.

Ladmiral, J.-R. (2005) 'Le «salto mortale de la déverbalisation»', *Meta* 50(2): 473-487.

Launay, M.B. de (1981) 'Le traducteur médusé', *Langue française* 51: 53-62 .

Meynet, R. (2009) 'Rhétorique biblique et sémitique: questions de méthode', http://www.retoricabiblicaesemitica.org/Pubblicazioni/Studia_Rhetorica/29a.Meynet_ISHR2009_conf.pdf, 15p.

[Abstract]

An Essay on Wonhyo's *Hwajaeng* and Translational Humanities

Jon, Sung-Gi
(Korea University)

Translational humanities are a project, in which we have been engaged for several years, that aims at renewing our poor and infertile translation culture in the field of the humanities. It seems to us that it must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actual crisis in the humanities studies. In this article, we shall explain first what is the task of translational humanities (section 2), and then we will describe briefly how we can achieve this task (section 3). But in order to handle well this task, we need and have to reconsider basically how the humanities should be studied, differently from what we have been doing, for too long, heavily influenced by the American and European humanities. What we have found in this reconsideration is Wonhyo's *hwajaeng*, and this *hwajaeng* method developed by the famous Buddhist philosopher serves as the theoretical basis of our proposition for the new academic studies. Through three sections, we will presen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Wonhyo's *hwajaeng* (section 4), his scholarly attainments and academic studies in line with his *hwajaeng* concept (section 5), and several related studies on his achievements through his famous triad «*ilsim-hwajaeng-muae*» (section 6). In our last section, we will stress on the aspects of translational humanities as communicative humanities and as rhetoric of enigma. Finally, we shall conclude by advising to approach translational humanities following the road of Wonhyo's *hwajaeng* as closely as possible. This endeavor will lead us to the paradigm shifting translational turn of the humanities studies in Korea.

▶ Key Words: Translational Humanities, translation, Wonhyo, Hwajaeng, scholarship,
translation culture, communicative humanities, rhetoric of enigma

전성기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

jonsg@korea.ac.kr

관심분야: 번역인문학, 번역학, 번역문법, 번역비평, 수사학, 해석학

논문투고일: 2013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